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

李 吭 九*

1.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현황

우리나라 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 각국과 경제이론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의 성장성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국별 경쟁력 평가에서 일본, 미국, 독일의 선진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개도국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기업 경영의 범세계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실질적인 세계 6위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의 경쟁력 평가기관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점차 하락하여 후발 개도국에도 뒤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세계 경제는 더욱 치열한 경쟁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의 수출시장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표 1) 각국의 경쟁력 비교

	성장성	시장성	종합 경쟁력	
	지수	지수	지수	순위
싱가포르	95.5	135.5	231.0	1
일본	97.2	125.5	222.7	2
미국	100.0	100.0	200.0	3
독일	90.0	101.8	191.8	4
말레이시아	91.2	99.4	190.6	5
한국	108.1	77.5	185.6	6
홍콩	115.3	69.6	184.9	7
스웨덴	79.4	96.0	175.4	8
프랑스	83.8	86.5	170.3	9
스위스	103.0	61.9	164.9	10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지수임.

될 것이다. 또한 UR협상의 타결로 국내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수출시장뿐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외국상품 및 서비스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경쟁력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기업과 정부가 그동안 경쟁력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전략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産業研究院 美洲研究室 責任研究員

2.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쟁력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각기 다른 경쟁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미국기업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즉, 경쟁의 주체인 미국기업들이 70년대에 증설투자에 의한 양적팽창에 열중하였을 때 일본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제조기법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 결과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을 크게 상회하고 일본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점증하자 미국기업들은 일본식 경영기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식 생산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용하기 시작하자 일본기업들은 한발 앞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 일본제품의 대미 경쟁력 우위가 심화되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유형의 상품보다는 무형의 기술력이 기업간 우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의 기술경쟁력 약화는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켰으며 미국은 제조업분야에서 2등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 정부와 기업은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대로 미국이라는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경쟁력이 약화되었던 미국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의 세계 시장과 미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력 회복세가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生産性 향상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사는 미국의 경쟁력 회복은 미국 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국제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강력한 생산성으로 재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의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이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쟁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새롭고도 더욱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고안해 낼 수 있는 관리자들과의 능력과 제품을 더욱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기업의 꾸준한 기술혁신, 임금상승률의 둔화, 저렴한 자본비용과 함께 달러화 가치의 하락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3.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업의 자구 노력

미국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구조재편(Restructuring)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기업은 연구개발의 대형화, 협동화, 국제화와 개발기술의 기업화를 통한 제품차별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이는 중앙집권적인 연구개발체제의 분산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재편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구조재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기업의 경쟁력은 생산효율화와 기술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재편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¹⁾과 기존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고객중시 경영방식인 리인벤팅(Reinventing)의 결합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생산인력의 資質 향상 및 품질관리 강화로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무자동화와 공정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分社化,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원 및 비대조직 인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배치와 노사간 협력관계 유지 등도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부문을 과감히 매각·폐쇄하거나 외부 전문기업에게 위탁경영 혹은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80년대에 성행하였던 무분별한 일본식 제조·경영기법의 도입을 자제하고 미국기업의 문화와 체질에 맞는 미국식 기법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본식 제조기법이 미국기업내에서의 적용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GM은 일본식 자동화 생산설비보다는 인력(People Power)을 중시하고 있으며, 워플과 코닝사 역시 품질향상을 위한 일본식 제안제도나 일본식 재고관리 시스템보다는 자사의 영업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운용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은 품질관리의 철저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생산·재고관리로 생산원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연제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투자와 근로자의 근로규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표 2〉 기업 재편의 주요 내용

주력업종중 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과감한 포기 생산라인의 단순화 및 자동화 국내의 경쟁업체와의 제휴 부품 공급선의 소수정예화와 이를 통한 다변화 연구개발활동의 국제화, 통합화 연구개발과정의 소비자의 참여 인원 및 조직의 축소와 효율성 제고 의사결정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근로자 교육·훈련의 강화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상품의 재평가

이외에도 미국기업은 국내의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여 신제품·신공정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개발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와 기술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자산의 공유를 통해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점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다.

[주 1] 리엔지니어링이란 작업팀에 있어서 근로자 1명이 여러 단계의 작업이 가능토록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실무담당자가 맡도록 하향조정하며, 조립라인과 사무실을 작업의 단순화와 신속화를 위해 재배치하고, 적기공급·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1) 기술경쟁력의 평가

미국 정부 역시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의 자유방임적 對企業 정책에서 탈피하여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력위원회와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산업전문가들에게 미국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지원정책의 평가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난 80년대말 이후 미국의 상무부, 국방부와 경쟁력위원회 등은 주요 핵심기술에 있어서의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이중 경쟁력위원회는 평가대상기술의 약 1/3이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은 각국 정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다양한 경제정책의 운용

미국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정책은 금융(환율), 조세, 무역, 기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 연준리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 기조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뿐 아니라 일본 엔화의 강세를 유도함으로써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는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영구적인 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영구적인 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유인정책 역시

〈표 3〉 첨단기술분야에서의 미국의 상대적 경쟁 지위

강한 분야	생명공학의 재료와 가공처리, 신약 개발, 유전자공학, 컴퓨터 보조 엔지니어링, 시스템공학,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기정보 저장방식, 정보기술 응용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전문가 시스템, 고급 소프트웨어 언어, 소프트웨어공학, 신경망, 컴퓨터응용 시스템, 동화 비디오, 그래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자 및 음성 인식, 자연언어 인식, 이미지 인식, 데이터 표현, 정보검색 및 갱신, 언어 이해 모델링 및 번역, 송수신기, 저배기가스엔진, 공기흡입방식 추진기술, 로켓방식 추진기술
유지 분야	금속 복합재료, 폴리머, 폴리머 복합재료, 자성재료, 광재료, 감광제, 초전도체, 촉매, 화학합성, 조형, 공정제어, 배기가스 감소,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인간공학, 계측기술, 구조역학, 컴퓨터 통합제조, 논리칩, 초미세기술, 센서, 하드웨어 통합, 광대역교환기, 디지털 기반, 광섬유 시스템, 다중방송, 디지털 신호처리, 대체연료 엔진
취약 분야	신금속재료, 박막 형성, 정밀 코팅, 첨단과학기기, 제조 디자인, 제조공정 디자인, 유연생산, 연구·디자인 및 생산의 통합화, 종합품질관리, 액츄에이터, 레이저 소자, 광소자, 하드카피 기술(전자사진 방식, 정전기 방식), 초연료절약형 엔진, 고출력 엔진
상실 분야	구조 세라믹스, 화면재료, 전자 세라믹스, 전자 패키지용 재료, 칼리움 비소, 실리콘, 메모리 칩, 멀티칩 패키징 시스템, PCB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전자발광소자 사용방식, 액정방식, 플라즈마방식, 진공형광제 사용방식), 광정보 저장방식

자료 : 미국경쟁력위원회, Gaining New Ground : Technology Priorities for America's Future, 1991.

신제품개발과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은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쌍

무주의와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국인 일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상품별 내수시장 점유율을 요구하는 결과지향형의 관리무역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운용 결과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산업에서 가시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루고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국상품의 수출촉진과 외국의 금융,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 대외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와 의회는 산·관·학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개혁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미국내 기업 및 연방연구소, 업종별 협회와 학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킨 1984년의 국가공동연구개발법을 보강한 국가생산협력수정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신제품의 국내생산에 국한하여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경쟁기업간의 협력을 허용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법의 제정 이후 지난해 5월까지 300여개의 산·관·학 공동연구연합이 형성되었으며 최근 기업간 제휴 및 산·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첨단 반도체개발을 위한 SEMATECH 계획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초전도체 개발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외 미국 정부는 국내 교육제도의 개선과 근로자 교육·훈련의 강화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지방 정부는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제조과학센터 산하의 기술센터 등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와 전문화되고 숙달된 근로자의 육성을 위해 신경영기업 및 첨단제조기계의 작동요령 등의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장주변 대학과 공동으로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신공정기술의 전수를 위해 공장에 지도감독관을 파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상운송망의 확충과 초고속정보망, 고속·대량 수송체제의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의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소위 정보고속도로 사업계획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1세기 미국의 장래를 결정지을 온갖 정보가 광섬유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대량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3) 기술정책 운용의 효율성 제고

미국의 경쟁력 강화정책중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정책분야이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정책을 운용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도 출범 초기에 취약한 미국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 얼마나, 어느 정도로 빨리 이들 산업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미국이 당면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는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을 위한 산·관 협력의 증진과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미국의 기술정책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정의하며,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요소가 기술력이라는 판단하에 강화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편정책방향은 기초과학 연

구에서 첨단응용기술 개발로, 방위관련기술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민수용 기술개발로, 독자연구보다는 산·관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신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우선 기술개발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를 경쟁적인 지원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 분배의 기준을 달리하는 한편 산하 연구소의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연방 연구개발 지원체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 정부는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의 국내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는 국방관련 연구개발예산을 민간분야로 재분배하고 있고 연구개발예산중 민수기술과 관련된 지출비중을 1998년까지 5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사용이나 민수용으로 공동사용될 수 있는 이원기술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민수 생산업체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재투자계획(TRP, 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프로그램(ATP)의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4) 정책지원의 사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기술정책방향은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첨단 평판화면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지원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업체와 2기 「세마테

크」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차세대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업체와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내의 빅 3은 지난해 연방 정부와 슈퍼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지금보다 연비가 3배나 높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에너지성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축전지의 공동개발을 위해 「첨단 배터리 컨소시엄」을 형성하였다.

또한 에너지성은 최근 병렬 슈퍼컴퓨터용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미국내 슈퍼컴퓨터 생산 및 주요 수요기업과 2개 산하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계획은 미국이 이미 세계 슈퍼컴퓨터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요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슈퍼컴퓨터가 이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을 선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신기술정책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에너지성, 상무성, 국방성과 전미 과학재단 등 미국의 기술정책 수립·운용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반도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판화면산업의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원에는 국방성, 에너지성, 상무성, 국가경제위원회, 무역대표부, 법무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평판화면산업 부활계획은 「세마테크」 이후 민간산업에 대해서는 최대규모인 10억달러를 첨단 평판화면의 연구와 생산에 지원하는 점에서 경쟁국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원 결정은 일본기업이 평판

화면 미국시장의 95%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미국은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3%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제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은 경제, 안보상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취해졌다. 미국 정부는 평판화면이 첨단 방위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평판화면의 공급 차질은 통신, 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실시하여 첨단산업 부활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판화면의 연구와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의 투자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연구에 1달러를 지출하고 또다른 1달러를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달러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평판화면산업에 대한 지원은 국방성과 에너지성이 자금지원을, 상무성은 해외 마케팅지원을, 무역대표부는 향후 생산될 미국산 평판화면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법무성은 일본전자업체 등 외국업체의 소규모 미국 경

기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며, 국가경제위원회는 정부기관이 미국산 평판화면을 공동으로 구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같이 미국의 신기술정책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상용화가 가능한 경쟁전 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운용의 목표를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성과가 기대되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에 맞추고 있다. 즉, 미국의 기술정책은 경쟁력위원회 등의 평가에 근거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의 부활과 경쟁력 회복세가 두드러지거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지위 강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수출과 고임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연방연구소는 민간기업과의 비용분담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학계도 정부의 기술정책에 발맞춰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면서 정부와의 공동연구영역 및 역할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미국의 신기술정책 기조는 목적달성형정책(Mission-oriented Policy)에서 확산지향형정책(Diffusion-oriented Policy)²⁾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계획이 성공을 거둘 경우 국방성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 정부예산 지원이 여타 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정책은 수출의 확대와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국내 생산 효율성의 제고에 의한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립·운용되고 있으며, 미국제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과 초일류기업으로 거듭 태어

[주 2] 목적달성형정책은 거대 과학기술이나 중요 과학 기술 발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기술혁신정책을 말함. 동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입비용보다는 성과를 중요시 하면서 개발된 신기술의 사후적인 파급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구하는 정책임. 확산지향형정책은 연구개발 초기에서부터 사전적인 시장의 수요를 중시하고 획기적인 기술혁신보다는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계에 대한 기술확산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함. 즉, 동정책은 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나기 위한 기업,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지금까지 미국의 경쟁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

〈표 4〉 경쟁력 강화시책별 효과와 과제

시책부문	효과	과제
금융·세제 지원	○	금융의 대내외 개방 및 세제개혁으로 실물부문 지원체제 정비
임금 및 노사안정	△→○	한국형 노사관계의 정착
토지가격 안정 및 공장용지 확대	△→○	토지구제 완화가 토지투기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정비
기술개발 촉진	△	법정부 차원의 기술개발계획 수립
SOC 확충	×→△	정부재정 확보, 민자유치 촉진
인력공급 개선	×	교육개혁 시급
행정개혁, 규제 완화	×	개혁청사진과 집행계획 시급
재정개혁	△→○	
금융개혁	×	금융의 대내외 개방일정 단축
경제국제화	×→△	외국인 투자유치, 수입선다변화 폐지 등의 조기추진
국민의식 개혁	×	비경쟁부문(공공부문, 교육)의 경쟁원리 도입

○ : 가시적 효과 △ :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 : 부진

았다. 70년대 후반 이후 약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경쟁력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약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일부분 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은 경쟁력 약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수년 이내에 경쟁력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업의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전략과 정부의 국가경영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 노사관계, 토지가격, 금리의 하향안정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물류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의 극대화, 기업혁신의 가속화와 서비스형 정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종 류 : 타이어산업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 및 자료, 각종 리포트 등
- 원고매수 : 제한없음.
- 마 감 : 홀수달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접수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무역회관 1910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타이어」지 담당자 앞
- 문 의 처 : TEL : (02)551-1904(이원택 과장)